차가운 공기

Cool Air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8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Cool Air" (Tales of Magic and Mystery 1928)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3177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과학에 관한 이야기이자, 스페인 의사가 시도한 인공 냉각법을 둘러싼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다.

왜 내가 차가운 공기 한 줄기에도 겁을 먹는지, 왜 남들보다 추운 방에 들어설 때 더 심하게 몸을 떠는지, 그리고 온화한 가을날의 열기 사이로 저녁의 한기가 스며들 때 왜 구역질과 혐오감을 느끼는지 설명해 달라고 당신은 묻는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악취를 맡았을 때처럼 추위에 반응한다고 말하는데, 나 역시 그런 인상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내가 하려는 것은 내 생애 마주했던 가장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의 이 기이한 증세가 그 사건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지는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다.

공포가 반드시 어둠이나 침묵, 혹은 고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나는 한낮의 눈부신 햇살 속에서, 대도시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그리고 평범하고 지루한 여관주인과 건장한 사내 둘이 곁을 지키는 북적이는 허름한 하숙집 한복판에서 공포를 마주했다.

1923년 봄, 나는 뉴욕에서 따분하고 돈도 안 되는 잡지 일을 맡게 되었다. 마땅한 월세를 낼 형편이 못 되었던 나는 적당히 깨끗하고 가구 상태도 견딜 만하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방을 찾아 저렴한 하숙집들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곧 내가 마주한 선택지란 그저 여러 종류의 악재 중 하나를 고르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다 시간이 좀 흐른 뒤, 웨스트 14번가에서 그동안 거쳐 온 곳들보다는 훨씬 덜 혐오스러운 집을 하나 발견했다.

그곳은 4층 높이의 갈색 사암 저택이었다. 외관상 1840년대 후반에 지어진 듯한 건물에는 목재 장식과 대리석이 갖춰져 있었으나, 얼룩지고 더러워진 그 화려함은 한때 이곳이 매우 품격 있고 호화로운 곳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천장이 높고 넓은 방들은 기괴한 무늬의 벽지와 터무니없이 화려한 치장벽토 몰딩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우울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요리 냄새가 감돌았다. 그래도 바닥은 깨끗했고 침구류도 제법 정돈되어 있었으며, 온수도 자주 끊기거나 차갑게 나오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이곳을, 언젠가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머물 만한 곳으로 여기게 되었다.

집주인인 에레로라는 이름의 스페인 여인은 지저분한 차림에 수염까지 듬성듬성 나 있었지만, 수다를 떨거나 3층 앞쪽 복도 방에서 사용하는 전등이 너무 늦게까지 켜져 있다고 잔소리를 하며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함께 사는 하숙생들도 딱히 말을 걸거나 참견하지 않아 조용하고 편안했다. 그들은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이었는데, 대개는 다소 거칠고 투박한 부류였다. 아래쪽 대로를 지나가는 전차의 소음만이 유일하고도 심각한 소음 공해였다.

그곳에 머문 지 3주쯤 지났을 때, 첫 번째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8시경, 바닥에 무언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나는 코끝을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를 한참 동안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천장이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물기는 거리 쪽을 향한 벽면의 한쪽 구석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듯했다. 나는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근원을 찾아 해결하고

싶어 서둘러 지하실로 내려가 집주인에게 알렸다. 집주인은 곧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무뇨스 박사님!"

그녀는 내 앞을 달려 계단 위로 올라가며 비명을 질렀다.

"그분은 약품을 쏟으셨어요. 박사님 본인이 너무 편찮으셔서 정작 의사가 필요하실 지경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시는데도 다른 사람의 도움은 절대 받으려 하지 않으세요. 병세가 아주 기묘해요. 하루 종일 이상한 냄새가 나는 목욕을 하시고, 흥분하거나 몸이 따뜻해져서는 안 되세요. 집안일도 전부 직접 하신다니까요. 작은 방은 온통 병이랑 기계들로 가득 차 있고, 의사 일도 안 하세요.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그분 이야기를 들으셨는걸요. 방금 전에도 갑자기 팔을 다친 배관공의 팔을 고쳐주셨다니까요. 밖에는 절대 안 나가시고 옥상에만 올라가세요. 제 아들 에스테반이 음식과 빨래, 약이랑 화학 약품들을 가져다드려요. 세상에, 그분이 몸을 차갑게 유지하려고 쓰는 염화암모늄 양 좀 보세요!"

헤레로 부인이 4층 계단 위로 사라지자,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암모니아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멎었다. 엎질러진 것들을 닦아내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자, 머리 위층에서 집주인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반면 무뇨스 박사의 발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가끔 들리는 소리라고는 가솔린 엔진이 돌아가는 듯한 기계음뿐이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했다. 나는 잠시 이 남자가 앓고

있는 기이한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가 근거 없는 괴팍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저명한 인물이 몰락했을 때 느끼는 비애란 참으로 끝이 없다고, 나는 진부한 생각을 하며 되뇌었다.

* * * * *

어느 날 오전, 방에 앉아 글을 쓰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나를 덮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무뇨스 박사를 영영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의사들은 이런 발작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해 왔고, 나 역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집주인이 말했던, 병약한 노인이 다친 노동자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간신히 몸을 이끌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내 방 바로 위층에 있는 문을 힘없이 두드렸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 오른쪽 멀리서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아주 유창한 영어로 내 이름을 묻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내가 이름을 밝히고 용건을 말하자, 내가 찾던 문 바로 옆에 있는 문이 열렸다.

서늘한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6월 하순의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문턱을 넘어 넓은 아파트로 들어선 나는 몸을 떨었다. 그곳의 화려하고 품격 있는 장식은, 지저분하고 초라한 이 거처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나를 놀라게 했다. 낮 동안에는 접이식 소파가 거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호가니 가구와 호화로운 커튼, 오래된 그림들, 그리고 고

풍스러운 책장까지, 그 모든 것은 이곳이 하숙집 침실이라기보다는 신사의 서재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제야 나는 위층에 있는 방, 즉 헤레로 부인이 말했던 병과 기계들이 가득한 '작은 방'이 그저 박사의 실험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사의 주 생활 공간은 그 옆에 붙은 넓은 방이었다. 그 방은 편리하게 구획된 벽장과 바로 연결된 커다란 욕실 덕분에, 옷장이나 눈에 띄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모두 숨겨둘 수 있는 구조였다. 무뇨스 박사는 분명 태생부터 교양과 안목을 갖춘 사람이었다.

내 앞에 선 인물은 키가 작았으나 비율이 아주 정교했다. 옷차림은 다소 격식을 차린 듯했는데, 재단과 핏이 완벽했다. 고귀한 기품이 흐르는 얼굴에는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위엄 있는 표정이 서려 있었고, 짧게 다듬은 철회색 수염이 얼굴을 장식하고 있었다. 구식 핀스네(pince-nez) 안쪽으로는 깊고 검은 눈동자가 빛났으며, 그 위로는 매부리코가 솟아 있었다. 그 코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은 켈트-이베리아계통이 주를 이루면서도 어딘가 무어인 같은 느낌을 풍겼다. 이발사의 손길이 정기적으로 닿은 듯 두껍고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카락은 높은 이마 위로 우아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 모습은 지적인 총기와 고귀한 혈통, 그리고 뛰어난 교양을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서늘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무뇨스 박사를 마주했을 때, 나는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의 외양 중 그 무엇도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그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안색과 차가운 피부의 감촉 정도가 이 기묘한 느낌에

물리적인 이유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평소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어쩌면 나를 멀어지게 만든 것은 그 기이한 냉기였을지도 모른다. 이토록 무더운 날씨에 그런 한기가 느껴지는 것은 비정상적이었고, 비정상적인 것은 언제나 혐오와 불신, 그리고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혐오감은 곧 경탄으로 바뀌었다. 그 기이한 의사가 보여준 탁월한 기술이 즉각 드러났기 때문이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실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눈빛만으로도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아차렸고, 숙련된 솜씨로 능숙하게 처치해 나갔다. 그러면서 그는 잘 조율되어 있으면서도 기묘하게 공허하고 울림 없는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자신이 죽음의 가장 지독한 숙적이며, 죽음을 좌절시키고 뿌리 뽑기 위한 기괴한 실험에 평생을 바치느라 전 재산을 탕진하고 친구들마저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그에게서는 자애로운 광신도 같은 면모가 느껴졌다. 그는 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옆방의 작은 실험실에서 가져온 약물로 적절한 조제를 하는 동안, 거의 쉴 새 없이 말을 늘어놓았다. 이 지저분한 환경에서 귀족 출신의 신사를 만난 것이 그에게는 드문 구경거리였던 모양이다. 지나간 화려한 시절의 기억이 밀려드는 듯, 그는 평소답지 않게 말을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기묘하긴 했으나 적어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구석이 있었다. 유창한 문장들이 세련되게 흘러나오는 동안, 나는 그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과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가 겪고 있는 발작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애썼다. 그는 의지와 의식이 유기적인 생명력보다 강하다고 주장하며, 내 약한 심장을 배려하듯 조심스럽게 나를 위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체라는 틀이 본래 건강했고 세심하게 보존되기만 한다면, 과학적 보완을 통해 특정 장기들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결함이 생기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신경적인 생동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 심장이 전혀 없어도 살아가는 법, 혹은 적어도 어떤 형태의 의식적인 존재로 머무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며 반쯤 농담조로 덧붙였다.

한편, 그 자신은 끊임없는 냉기를 포함한 매우 엄격한 요법이 필요한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다. 체온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일이 지속된다면 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의 거처는 화씨 55도에서 56도 사이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했는데, 이는 암모니아 냉각 흡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시스템의 가솔린 엔진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를, 나는 아래층에 있는 내 방에서 자주 듣곤 했다.

경이로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발작이 멎자, 나는 그 은둔의 천재를 추종하는 제자가 되어 그 오싹한 장소를 떠났다. 그 후로도 나는 코트를 챙겨 입고 그를 자주 찾아갔다. 그가 들려주는 비밀스러운 연구와 소름 끼치는 결과들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서가에 꽂힌 파격적이고도 놀라울 정도로 오래된 책들을 살펴볼 때면 몸이 가늘게 떨리기도 했다. 덧붙이자면, 나는 결국 그의 숙련된 치료 덕분에 그 병으로부터 거의 영원히 벗어날 수 있었다.

무뇨스 박사는 중세 학자들의 주문을 경시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이 암호 같은 공식들이 희귀한 심리적 자극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다. 유기적인 맥동이 사라져 버린 신경계의 실체에, 이 주문들이 분명 독특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그가 들려준 발렌시아의 노(老) 토레스 박사에 관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토레스 박사는 무뇨스의 초기 실험을 함께하며, 지금의 병증이 시작된 18년 전의 중병을 앓던 무뇨스를 간호해 주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존경받는 그 의사는 동료를 구해내자마자, 자신이 맞서 싸우던 그 잔혹한 적에게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아마도 그 압박감이 너무 컸던 모양이다. 무뇨스 박사는 치료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사실을, 세세한 설명은 피하면서도 속삭이듯 분명하게 밝혔다. 그것은 연로하고 보수적인 의학자라면 결코 반기지 않을 광경과 과정들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

몇 주가 흐르면서,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실을 목격했다. 헤레로 부인이 짐작했던 대로, 나의 새로운 친구는 육체적으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안색은 더욱 검푸르게 변해갔고, 목소리는 공허하고 불분명해졌다. 근육의 움직임은 예전처럼 정교하게 조절되지 않았으며, 정신과 의지는 점차 회복력과 주도성을 잃어갔다. 그는 이러한 비극적인 변화를 결코 모르지 않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과 말투에는 기괴한 냉소가 깃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내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거부감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그는 기이한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국적인 향신료와 이집트식 향에 집착하더니, 급기야 그의 방에서는 왕들의 계곡에 잠든 파라오의 무덤 속에서나 날 법한 냄새가 풍겼다. 동시에 차가운 공기를 원하는 요구도 점점 거세졌다. 나는 그의 요청에 따라 방 안의 암모니아 배관을 증설하고, 냉각기의 펌프와 공급 장치를 개조하는 일을 도왔다. 덕분에 그는 실내 온도를 34도나 40도까지 낮출 수 있었고, 나중에는 28도까지 떨어뜨리기도 했다. 물론 물이 얼어붙거나 화학 실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욕실과 실험실의 온도는 그보다 낮게 유지했다. 옆방 세입자가 연결된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얼음 같은 냉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기에,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꺼운 커튼을 달아주는 일까지 거들었다. 그는 무언가 기괴하고 병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듯 보였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으면서도, 장례 절차나 매장 방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그저 공허한 웃음만 흘릴 뿐이었다.

결국 그는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소름 끼치게 하는 동행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치료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나는 그를 주변의 낯선 이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특별히 구입한 두꺼운 울스터 코트를 껴입고, 매일 그의 방을 청소하며 필요한 것들을 세심히 챙겼다. 또한 그의 심부름도 도맡아 했다. 그가 약국이나 실험 기구 상점에 주문하는 몇몇 화학 물질들을 볼 때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당혹감에 숨을 헐떡이곤 했다.

그의 아파트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점점 짙게 깔리는 듯했다. 앞서 말했듯 건물 전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의 방은 그

정도가 훨씬 심했다. 온갖 향료와 향을 피우고, 그가 직접 하겠다고 고집하며 끊임없이 몸을 담그는 자극적인 화학 약품 목욕물로도 그 악취를 가릴 수는 없었다. 나는 이 냄새가 그의 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고, 그 병의 실체가 무엇일지 생각하자 몸서리가 쳐졌다. 헤레로 부인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성호를 그으며 나에게 그를 온전히 맡겨버렸다. 아들 에스테반조차 더는 그의 심부름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말이다. 내가 다른 의사를 권유할 때마다, 환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법한 한계치까지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곤 했다. 그는 격한 감정이 신체에 미칠 영향을 분명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 추진력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졌고, 그는 침대에만 누워 있기를 거부했다. 병세 초기에는 무기력함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다시 불같은 의지가 살아나고 있었다. 마치 죽음의 악마가 그를 덮쳐오는 순간에도 그 고대의 원수에게 맞서 저항을 퍼부을 기세였다. 식사를 하는 모습은 언제나 기이할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는데, 이제 그는 거의 먹는 것조차 포기한 상태였다. 오직 정신력만이 그를 완전한 붕괴로부터 붙들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일종의 긴 문서를 작성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그 문서들을 정성껏 봉인한 뒤, 자신이 죽으면 지정된 이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침과 함께 보관해 두었다. 그 대상은 대부분 동인도 출신의 문인들이었으나, 한때 명성을 떨쳤으나 지금은 죽은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괴담들이 떠돌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전달되지 않은 채 봉인도 풀리지 않은 그 모든 서류를 태워버렸다.

그의 외모와 목소리는 완전히 끔찍하게 변해갔고, 그가 곁에 있는 것조차 거의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어느 9월의 날, 전등을 수리하러 온 남자가 그를 예기치 않게 마주쳤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말았다. 무뇨스 박사는 자신을 철저히 숨긴 채, 그 발작을 다스릴 약을 효과적으로 처방해 주었다. 기이하게도, 그 남자는 대전쟁의 공포를 온몸으로 겪어낸 이였음에도 그토록 철저한 공포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

* * * * *

그러다 10월 중순, 모든 공포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일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다. 어느 날 밤 11시경, 냉각기의 펌프가 고장 나 버린 것이다. 그 여파로 세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암모니아를 이용한 냉각 과정이 불가능해졌다. 무뇨스 박사는 바닥을 두드려 나를 불렀고, 나는 필사적으로 고장 난 곳을 수리하려 애썼다. 그동안 집주인인 박사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생기 없고 덜컹거리는, 공허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과한 나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근처의 24시간 정비소에서 정비사를 불러왔으나, 새 피스톤을 구해야 하는 다음 날 아침까지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죽어가는 은둔자의 분노와 공포는 기괴할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그 기세는 이미 쇠약해진 그의 육신마저 산산조각 낼 듯 보였다. 한 번은 경련이 일어난 듯 그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욕실로 급히 뛰어 들어간 적도 있었다. 그는 얼굴을 붕대로 꽁꽁 싸맨 채 더듬거리며 밖으로 나왔고, 나는 그 이후로 그의 눈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삽화: "그는 얼굴을 겹겹이 붕대로 감은 채 더듬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나는 다시는 그의 눈을 보지 못했다."]

아파트의 냉기는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새벽 5시쯤 되자 무뇨스 박사는 욕실로 들어갔다. 그는 내게 밤샘 영업을 하는 약국이나 식당을 뒤져서라도 어떻게든 얼음을 계속 가져다 놓으라고 명령했다. 때로는 허탈한 마음으로 얼음을 구해 돌아와 닫힌 욕실 문 앞에 가져다 놓을 때면, 안쪽에서 불안하게 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굵직한 목소리가 "더 가져와, 더!"라며 명령을 내뱉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날이 밝았고,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에스테반에게 제안했다. 내가 펌프 피스톤을 구해오는 동안 얼음을 좀 대신 가져다주거나, 아니면 내가 얼음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그가 피스톤을 주문해 달라고 말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엄한 가르침을 받은 에스테반은 내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결국 나는 환자에게 얼음을 계속 공급할 사람이 필요해졌다. 8번가 모퉁이에서 마주친, 행색이 수상쩍고 게으른 부류의 사내를 고용해 내가 소개한 작은 가게로 보냈다. 그사이 나는 펌프 피스톤을 구하고 그것을 설치할 숙련된 인부들을 섭외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헛되이 전화만 돌려대고, 지하철과 노면 전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헤매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나는 그 은둔자 못지않게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정오 무렵, 시내 중심가에서 적당한 보급품 가게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30분쯤, 필요한 장비들과 건장하고 영리한 기술자 두 명을 데리고 숙소에 도착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다 했다. 부디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검은 공포는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집 안은 아수라장이었고, 경외심에 찬 사람들의 웅성거림 너머로 한 남자가 낮은 저음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기 중에는 악마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무뇨스 박사의 닫힌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악취를 맡은 세입자들은 저마다 묵주를 굴리며 기도를 올렸다. 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는 얼음을 두 번째로 배달한 직후, 눈이 뒤집힌 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 듯했다. 아마도 지나친 호기심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당연히 문을 잠그고 나갈 수 없었을 터였다. 그런데도 문은 안쪽에서 잠긴 듯 굳게 닫혀 있었다. 문 안쪽에서는 이름 모를 무언가가 느릿하고 걸쭉하게 뚝뚝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영혼 깊은 곳을 갉아먹는 공포를 억누르며 헤레로 부인과 일꾼들에게 짧게 의견을 물은 뒤, 나는 문을 부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철사로 만든 어떤 장치를 이용해 밖에서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방법을 찾아냈다. 우리는 이미 복도에 있는 다른 방들의 문을 모두 열어두었고, 창문들도 최대한 높이 활짝 열어젖힌 상태였다. 이제 우리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이른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저주받은 남쪽 방으로 떨리는 마음을 안고 들어섰다.

욕실의 열린 문에서 복도 문으로,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이어지는 검고 끈적한 흔적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끔찍한 작은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그곳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급박한 마지막 문장들을 휘갈겨 쓴 바로 그 발톱에 더럽혀진 듯 흉측하게 얼룩져 있었다. 그 종이 위에는 앞을 못 보는 자가 더듬어 쓴 듯한 끔찍한 필체로 무언가가 연필로 갈겨 써 있었다. 이어지는 흔적은 소파로 향하더니, 형언할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며 끊겨 있었다.

소파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혹은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 나는 여기서 차마 말할 수도, 감히 말할 수도 없다. 다만 내가 성냥을 그어 종이를 까맣게 태워버리기 전, 끈적하게 얼룩진 종이 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간신히 판독해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주인 여인과 기술자 두 명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미친 듯이 뛰쳐나와 근처 경찰서로 달려가 앞뒤 맞지 않는 말을 내뱉으며 울부짖는 동안, 내가 공포에 질려 간신히 해독해낸 내용이다. 북적이는 14번가에서 자동차와 트럭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오고 노란 햇살이 내리쬐는 그 풍경 속에서, 그 구역질 나는 말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말들을 믿었음을 고백한다.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어떤 일들은 차라리 추측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이제 암모니아 냄새만 맡아도 혐오감이 치밀고 유난히 서늘한 바람만 불어도 정신이 아득해진다는 사실뿐이다.

"끝이 왔다." 그 불쾌한 휘갈겨 쓴 글귀는 이렇게 전하고 있었다. "끝이 눈앞이다. 이제 얼음은 없다. 남자는 그것을 보고 도망쳤다. 기온은 매분 높아지고 있고, 조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당신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장기의 기능이 멈춘 뒤에도 의지와 신경, 그리고 보존된 신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내가 했던 말을 말이다. 이론은 완벽했으나,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내가 미처 예상치 못한 점은 서서히 진행되는 퇴화였다. 토레스 박사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내 편지를 읽고 나를 간호하며, 나를 낯설고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야만 했다. 그리고 장기들은 결코 다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내가 말한 방식대로, 즉 인공적인 보존법을 써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이미 18년 전 그 당시에 죽었으니까."